

기자의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은 취재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

리 광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자, 언론인들은 창조하고 변혁하는 우리 당의 출판보도일군답게 혁신적인 안목으로 기발하게 착상하며 취재집필활동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 21권 67페이지)

우리의 신문, 방송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들속에서 즐겨 보고 읽히우는 생활의 공동무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기자, 언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매일, 매 시각 일어나는 새로운 사실, 사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만족을 줄수 있는 가치있는 소재들을 민활하게 찾아내는 취재의 능수들로 되어야 한다.

기자활동의 첫 공정으로서의 취재는 기사, 편집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 글감을 마련하는 작업으로서 보도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취재활동은 각이한 부문과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벌리는 매우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교제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기자들이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여야 취재를 능란하게 이끌어갈수 있으며 취재의 목적도 훌륭히 달성할수 있다.

기자의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은 취재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기자의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이 취재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취재가 각이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진행되는 교제활동이기때문이다.

기자들의 취재조건과 환경은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로 부터 시작하여 공장과 농장, 광산과 어촌은 물론 학교와 병원, 극장과 경기장, 사무실 또는 따뜻한 분위기가 한껏 흐르는 아늑한 살림방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리고 같은 현장조건이라고 하여도 생산조건, 회의조건, 분초를 다투는 사업이 한창이거나 격렬한 론쟁이 벌어지고있는 긴장한 조건, 휴식 또는 오락회가 벌어지고있는 즐거운 분위기 등 예상할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맞다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기자는 취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사전료해도 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해야 할 사람들은 언제나 기자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것이 아니며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일로 바빠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뿐만아니라 기자들 역시 취재과정에 자기가 목적하지 않았던 어떠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새로운 취재를 시작하여야 할 때도 있게 된다.

한마디로 생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황들이 생기기마련이다. 이러한 불의의 정황, 생각지 못했던 정황은 기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것을 요구하게 된다.

취재는 오늘 못하면 래일 하고 래일 못하면 또 후에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것만큼 기자들은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자기가 계획한 사업을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실천가,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실례로 긍정교양기사 《아홉명이 그린 초상》의 취재집필경험을 들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모범인 어느 한 단위를 소개하기 위하여 나갔던 기자는 자기가 목적하였던 사람을 끝내 만날수가 없었다. 한번 만나려고 하여도 만나기가 조련치 않은 사람, 만나서도 자기를 좀처럼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 기자는 바로 여기에

서 새로운 문제점을 포착하고 취재방향을 대담하게 바꿀 결심을 내리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주위의 아홉명 사람들에게 대한 취재를 통하여 긍정적주인공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진행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었다.

아홉명의 등장인물들의 말을 통하여 주인공의 초상을 감명깊게 그려낸 기사는 착상도 좋지만 기자의 취재방법도 독특한 좋은 실례이다.

기자의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이 취재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취재가 각이한 대상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진행되는 정보수집활동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취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일반교제와는 달리 공식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정보수집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일반교제는 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보다 많은 경우 개별적사람들사이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허물없이 진행된다.

이러한 교제에서는 통보전달이나 감수에 교제참가자들의 인격적특징이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취재는 단순한 사상감정의 교환이나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글을 쓰기 위한 기자의 정보수집활동인것으로 하여 취재과정에 대상은 긴장, 당황, 흥분 등과 같은 일상적인 교제에서는 느낄수 없는 특유의 심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기자들이 취재과정에 있게 되는 취재대상으로 하여금 구면지기와 마주 앉은것만 같은 자연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취재에 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자의 취재대상은 고정불변한 사람들이 아니다.

기자의 취재대상은 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 농민, 학생,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로인들과 어린이들 지어는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계층, 직업이나 지식정도, 나이, 성별, 국적 그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그들속에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발표력이 없는 사람, 시야가 좁은 사람, 기자들과 접촉해보지 못한데로부터 취재에 잘 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이렇듯 성격도 취미도 직업도 지식정도도 각이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글을 쓰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자면 대상과 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기자는 대상과 환경을 잘 고려하여 언제나 취재대상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기자의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이 취재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취재가 끊임없는 사색으로 이어지는 창조적인 활동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취재활동에서 사색은 문제성있는 글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공정이다.

취재는 사색을 동반하게 되며 사색은 취재를 추동한다고 말할수 있다. 사색을 떠난 기자의 취재활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이러한 사색속에 기자는 질문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치있는 정보를 통보해주면서 담화를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가게 된다.

정력을 쏟아붓는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가 없이는 현실에서 의의있는 자료를 잡아챌수 없다. 현실에서 골라잡은 모든 자료가 곧 기자의 글감으로 되는것은 아닌것으로 하여 기자의 사색과정은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를 도출해내는 탐구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기자는 많은 자료들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글감들을 찾아취기

위한 사색과 탐구활동을 벌리게 된다. 훌륭한 글감을 쥐는가, 못쥐는가 하는것은 기자의 사색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말할수 있다. 한마디로 사색은 취재활동의 출발점이고 글감은 사색의 결과물이다.

취재과정에 새로운것, 현실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그 취재는 아직 끝을 본 취재라고 볼수 없다. 기자는 대상과 어울려 울고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일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종자, 새로운 자료, 새로운 세부를 찾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사색을 벌려나가게 된다.

기자들의 이러한 능동적인 사색과 활동과정에 현실에서 잡아쥔 개개의 글감들은 새로운 종자로 무르익게 되며 룹관적으로만 떠오르던 구성이 완성되게 된다.

실례로 경험기사 《강냉이농사에서 7월은 농한기가 아니다》의 취재경험을 들수 있다.

기자는 농장원들과 함께 어울려 일도 하고 즐겁게 휴식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새것에 대한 사색을 깊이한것으로 하여 강냉이풍작을 이룩하는데서 개꼬리뽑기가 중요하다는 문제점을 포착하고 참신한 종자를 잡아쥔으로써 실효성이 보장된 문제작을 집필할수 있었던것이다.

취재의 특성은 기자들로 하여금 모든 취재활동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취재를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모든 취재활동에서 자신심을 가지는것이다.

기자의 자신심은 취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요소로 된다.

기자는 자기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취재임무를 맡아도 구체적인 계획밑에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취재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나 기자자신이 자신심을 가지지 못하면 소심해지고 피동에 빠지게 되며 취재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 어떤 대상과 맞다들려도 목적인것을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취재를 시작할 때 그것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취재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능란한 담화예술을 소유하는것이다.

취재의 기본목적은 어디까지나 대상과의 구체적인 담화를 통하여 달성되는것만큼 기자들이 높은 담화예술을 소유하는 문제는 취재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대상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근할것인가, 말문을 어떻게 뻗것인가,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것인가 하는것들은 기자들 누구나 고심하는 문제이다.

기자들은 그 어떤 대상에게든지 주동적으로 접근하여 말문을 뻗줄 아는 묘기를 지녀야 한다.

적지 않은 취재대상들속에서는 자신의 겸손성, 사업조건의 긴장성 등의 요인으로부터 기자들의 취재요구에 《별로 해놓은 일이 없는데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등의 말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상들과의 취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취재가 기자자신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취재대상을 위한 사업으로 느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실례로 기자가 첫 인사말부터 《지나가다 멋쟁이건물이 눈에 띄워 저도 모르게 끌려 왔습니다.》, 《새도 앓고싶은 나무가 있다고 밭길이 여기로 자꾸 향해져 들렸습니다.》 등의 방법으로 허물없는 말을 건네며 접근하는 경우 거기에 등을 돌려대는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기자가 첫 대면부터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취재대상은 기자를 공적용무로 맞다들린 서먹서먹한 손님이 아니라 구면지기를 만난것만 같은 심리적안정감과 호감을 품게 되며 취재에 기꺼이 림하게 된다.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끌어내며 목적지향성있게 담화를 이끌어내아가야 한다.

취재담화는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목적의식적성격이 강한 교제과정이며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이 진행하는 대화와는 달리 기자가 일정한 목적 밑에서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가게 된다. 그런것만큼 담화를 진행해나가는데서는 그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화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가도록 하여야 한다.

취재를 이끌어내아가는데서 취재대상과 동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차 친숙해지는것이 중요하다.

취재대상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펴나갈수 있게 될수록 심리적자극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사고를 튕겨주기도 하고 적극 긍정도 하고 고무 격려도 하면서 담화흐름을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능숙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

취재를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셋째로, 기자들이 그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다재다능한 박식가로 준비하는것이다.

취재에서 시작은 좋았는데 별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것은 취재과정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취재를 깊이 할수 없으며 취재를 깊이 하지 못하면 결국 좋은 글을 쓸수 없게 된다.

모든 기자들이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새 소식들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저저마다 기자들이 역시 아는것이 많다고, 기자를 만난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되며 이렇게 되면 힘들게 생각했던 취재도 쉽게 진행할수 있다.

이처럼 기자는 취재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맞다들리는 대상의 심리적특성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에 자신만만하게 대처할수 있는 림기응변의 묘기를 지녀야 하며 취재대상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를 능숙하게 벌려나갈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력을 부단히 높여 취재활동을 참신하게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성국가건설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내아가야 할것이다.